

사회 계층에 따른 가치 차이: 자기 참조 가치 대 문화 참조 가치*

전 혜 빈

박 혜 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자기 참조 가치)와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지각하는 가치(문화 참조 가치)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6차 한국 자료를 통해 19세 이상인 남녀 1,140명의 사회 계층에 따른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박애와 쾌락주의를 더 중요시하였고, 보편주의와 전통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지각하는 가치에 대해 묻는 문화 참조 질문지를 추가하여, 자기 참조 가치와 문화 참조 가치에 있어 사회 계층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인 가치 영역(권력, 성취)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는 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반대로, 문화 참조 가치와 관련해서는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개인주의적인 가치 영역(자기주도성, 쾌락주의)을 덜 중요하게 여기고, 집단주의적인 가치인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 계층에 따라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자신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지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사회 계층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문화를 측정함에 있어 문화 참조 접근이 가지는 함의를 논하고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사회 계층, 가치, 자기 참조, 문화 참조

* 본 논문의 연구 2는 장훈장학회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교신저자 : 박혜경,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2844)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Tel : 02-920-7303, E-mail : hpark@sungshin.ac.kr

“Born with a silver spoon in mouth”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한국의 “수저계급론”은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는 않는다.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신조어는 한국 사회의 계층 간 격차를 반영하며, 한국인들이 계층의 고착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Pew Research Center에서 2013년도에 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9개국 중 31개국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은 ‘아주 큰 문제’라고 응답했다(Wike, 2013). 특히, 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들 중 한국에서는 응답자들 가운데 66%가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다. 그런데 이는 파키스탄(85%)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고, 중국(52%), 일본(34%) 및 39개국의 중간값(49%)보다 높은 수치였다. 즉, 이 결과는 많은 한국인들이 소득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소득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의 평균 소득/하위 10%의 평균 소득)을 산출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정도가 2006년 이전에는 5.57이었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7.16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황수경, 2017).

국내에서 사회 계층 간 격차와 사회 계층 고착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주로 사회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김병조, 2000; 이왕원, 김문조, 최율, 2016). 더불어, 사회 계층과 교육(김위정, 2012; 박수역, 2011; 백병부, 2012), 건강 및 복지(김도영, 2015; 김진영, 2007) 등의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회 계층이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하나로서, 주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에 포함되어 왔다(Diemer,

Mistry, Wadsworth, Lopez, & Reimers, 2013; e.g., 김경미, 최인철, 류승아, 2012; 박정은, 박혜경, 2017;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조인주, 2010). Diemer와 동료들(2013)은 최근 몇 년 간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격차가 커진 만큼,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 계층에 대하여 심리학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수저계급론과 관련된 신조어들과 소득 배율에 대한 통계 수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심리학자들 또한 사회 계층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심리학 내에서 사회 계층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치는 개인이 추구하는 최종의 상태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유도한다(Magee & Smith, 2013; Schwartz, 1992). 달리 표현하면, 가치는 개인이 가지는 신념으로,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파악하면 그 사람의 태도, 의견, 행동 등을 예측할 수 있다(Schwartz, 2003). 그러므로 만약 사회 계층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르다면, 이는 서로 다른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계층의 고착화, 의견의 대립, 정치적·사회적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고 추측된다(e.g., 강원택, 김병연, 안상훈, 이재열, 최인철, 2014; Markus & Conner, 2013). 따라서 계층에 따라 어떠한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사회 계층

Cohen(2009)은 한 국가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사회 계층)를 주요한 하위문화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사회 계층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위치, 사회 층화와 같이 다양한 용어와 혼용된다(김범준, 2016; 박혜경, 2015). 그런데 Diemer와 동료들(2013)은 혼용되는 다른 용어들보다 사회 계층을 상위의 개념으로 분류하고, 이를 권력, 명성, 자원에 대한 통제 수준으로 정의 내렸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 계층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상대적 지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된다(김범준, 2016, p. 20). 사회 계층이라는 용어가 다른 용어들보다 상위의 개념이며(Diemer et al., 2013)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연구자들 간 통일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변상우, 2018) 본 논문에서는 ‘사회 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Kraus, Piff와 Keltner(2011)는 논문의 서론에서 Domhoff(1998)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삶의 매일은 사회 계층에 뒤덮여 있다”고 표현하였다(p. 246). 즉, 개인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떠한 음악을 듣는지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 사회 계층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부, 교육 수준, 직업 및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 계층의 수준은 개인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 패턴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 계층은 하나의 문화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Kraus, Cote, & Keltner, 2010).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상위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종합적인 사고를 하며(Kraus, Piff, Mendoza-

Denton, Rheinschmidt, & Keltner, 2012; Stephens, Markus, & Townsend, 2007), 행동의 원인을 추론할 때 상황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개인의 내적 특성에 주목하는 기본적 귀인 오류를 덜 보였다(Grossmann & Varnum, 2011). 또한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부족한 자원과 상대적으로 더 큰 위협에 노출되는 사회적 배경을 가진 데에서 기인하는 낮은 통제감으로 인해 사회적 결과들을 보다 외부 상황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높은 사회적 맥락성을 보였다(Kraus et al., 2010, 2012; Kraus, Piff, & Keltner, 2009). 그리고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지향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높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Piff, Kraus, Cote, Cheng, & Keltner, 2010). 즉, 낮은 계층의 환경은 개인을 타인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상호의존적이 되게끔 한다(Stephens et al., 2007). 반면, 상대적으로 상위 계층에 위치하는 사람들은 하위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분석적인 사고를 하고(Kraus et al., 2012),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선호와 선택을 지향했으며(Snibbe & Markus, 2005; Stephens et al., 2007), 타인의 정서에 덜 정확하게 공감했다(Kraus et al., 2010). 요컨대, 진술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 계층에 따라 인지 양식, 공감 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 계층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에는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있다. 즉, 사회 계층의 객관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권력, 소득, 부, 교육 수준, 직업 등을 측정하며, 주관적인 측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상대적인 사회적 위치를 측정한다(Diemer et al., 2013). 대표적인 주

관적 사회 계층의 측정도구로는 MacArthur의 10단계 사다리(rank on a ladder of status)가 있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일반적으로 사회 계층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 간의 상관성이 높지 않고(김범준, 2016), 어떠한 변수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에 따라 측정할 지표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선행 연구의 제안에 따라(변상우, 2018; Diemer et al., 2013), 사회 계층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두 지표 모두 측정에 포함시켰다.

자기 참조 가치 대 문화 참조 가치

가치란 태도와 규범, 의견, 행동 등을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추상적 동기이다(Schwartz, 2003). 예컨대, 권력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이 집, 학교, 직장 및 친구 관계에서 보이는 행동과 태도의 기저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동기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Schwartz(1992)는 가치를 10개의 기본 가치(자기 주도성, 자극, 쾌락주의, 성취, 권력, 안전, 동조, 전통, 박애 및 보편주의)로 구분하였고 이 10개의 기본 가치는 총 57개의 세부 가치로 나뉜다(Schwartz, 1992; 1994).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10개의 기본 가치가 범문화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각각의 세부 가치들이 여러 다른 문화권에서 유사하게 10개의 기본 가치들로 구별되는지 검증하였다(Schwartz, 1994).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44개국, 97개의 표본(총 25,863명)을 통해 10개의 기본 가치들이 상당 부분 문화 보편적인 기본적 가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이 10가지 기본 가치 중 전통의 세부 가치로 포함되었던 겸손이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 분석 결과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겸손을 새로운 가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또한 권력의 세부 가치로 포함되었던 체면 가치가 MDS 분석 결과, 안전과 더 가깝고 권력과는 구별될 수 있음이 관찰되어, 체면을 새로운 가치로 추가하였다(Schwartz, Cieciuch, Vecchione, Davidov, Fischer, Beierlein, et al., 2012). 이에 따라 가치 분류 체계는 총 12가지의 기본 가치로 재구성되었다. 12가지 기본 가치 항목과 각각의 개념적 정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 가치들은 상황-보편적인 목표이며,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고, 개인 혹은 집단의 삶에서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한다(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90; Schwartz et al., 2012). 이와 같이 기본 가치들이 개인의 목표라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집단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Schwartz, 1992; Schwartz & Bilsky, 1987). Schwartz(1992)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가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가치에 반대되는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기본 가치는 집단주의적인 가치와 개인주의적인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 제안하였다. 예컨대, 성취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박애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반하는데, 그 이유는 성취 가치에 따라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박애 가치에 따라 다른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과 충돌하기 때문이다(Schwartz, 1994). 따라서 기본 가치들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권력, 성취, 쾌락주의, 자극 및 자기주도성 가치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개인주의적인 가치로 정리하였고, 박애, 전통 및 동조 가치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집단주의적인 가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보편주의와 안전 가치의 경우, 집

단과 개인의 이익 양자에 기여할 수 있기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가치 영역의 경계 (boundary)에 해당한다고 제안하였다(Schwartz, 1992).

이처럼 문화 보편적으로 개인에게 중요시되는 기본 가치들이 존재하며(Schwartz, 1992; Schwartz et al., 2012) 이러한 기본 가치들 중에서도 개인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가치

에 따라 개인의 의사결정, 태도 및 행동이 결정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제안에 따라(Schwartz, 2003) 수많은 가치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2018년 7월 12일 구글 스칼라 검색 결과 Schwartz, 1992 논문인용횟수 13,601회).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가치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인 '자기 참조 가치'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들이 중요시할 것

표 1. 12가지 기본 가치 항목과 개념적 정의(최정원, 이영호, 2014; Schwartz et al, 2012)

가치	동기적 목표에 따른 개념적 정의
자기주도성 (Self-direction)	자신의 독립적인 생각과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
권력 (Power)	사회적 지위와 위신 및 다른 사람들과 자원에 대한 지배와 통제력의 추구
안전 (Security)	자기 자신, 주위의 환경 및 대인 관계의 안전, 조화 및 안정 추구
쾌락주의 (Hedonism)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 추구
박애 (Benevolence)	내집단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고 그들의 복지에 헌신함을 추구
성취 (Achievement)	사회적 기준에 따른 성공 추구
자극 (Stimulation)	삶에서의 흥미, 새로움 및 도전 추구
동조 (Conformity)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어긋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거나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행동, 성향 및 충동을 자제
보편주의 (Universalism)	모든 사람들의 평등, 정의 및 보호를 추구하고 자연 환경의 보존을 추구
전통 (Tradition)	문화, 가족 및 종교적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함을 추구
겸손 (Humility)	세상의 큰 틀 속에서 자신이 미미하다는 인식
체면 (Face)	모욕을 피하고 자신의 공적 이미지를 유지함을 추구

이라고 여겨지는 가치인 '문화 참조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Fischer, 2006; Wan, Chiu, Peng, & Tam, 2007; Wan, Chiu, Tam, Lee, Lau, & Peng, 2007). Schwartz(1992)는 20여 개국의 비교를 통해 10가지의 기본 가치가 범문화적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가 연구참가자가 속한 집단이나 문화 내에서 이상적이라 지각되는 문화적 규범에서 비롯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 연구참가자 자신에게 우선시 되는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연구참가자에게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개인의 가치 중요도에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문화적 규범에서 비롯된 가치를 반영하였다면 연구참가자들 간의 변산이 작아 높은 집단 동질성을 보였을 것이나, 모든 기본 가치들에 대한 응답에서 동일한 문화권의 연구참가자들 간 상당한 개인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chwartz는 문화적 규범에서 비롯되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문화 내 다른 구성원들이 보았을 때, 가치 X는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는 가치로서 얼마나 중요한가?"와 같이 질문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가치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인 '자기 참조 가치'와 개인이 속한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들이 중요시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치인 '문화 참조 가치'로 나뉘어 측정될 수 있다(박혜경, 2012; Fischer, 2006; Schwartz, 1992;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Fischer(2006)는 문화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서 자기보고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기 참조 측정 방법과 문화 참조 측정 방법이 포착해내는 가치가 다를 것이라 제안하였다. 그

는 10여 개국의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출생 국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개의 기본 가치 각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응답하게 하였다. 이러한 문화 참조 가치 측정 결과를 Schwartz(1994)의 연구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자기 참조 점수와 문화 참조 점수는 7.84%의 변산만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측정 방법이 가치의 각각 다른 측면을 포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지되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자기 참조)와 대학의 평균적인 학생들에게 중요한 가치(문화 참조)를 측정하였다(Wan, Chiu, Tam, et al., 2007). 그 결과, 56개의 가치들 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가치 10개가 대학의 평균적인 학생들에게 중요할 것이라 응답한 가치 10개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다. 요컨대, 위와 같이 자기 참조에 따른 가치 중요도와 문화 참조에 따른 가치 중요도 사이의 상관이 낮으므로, 개인의 가치 중요도를 측정하여 종합한 것을 반드시 해당 문화의 가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박혜경, 2012; Fischer, 2006; Schwartz, 1992; Wan, Chiu, Tam, et al., 2007).

한국 문화 맥락에서 자기 참조 가치와 문화 참조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박혜경, 2012)에서는 Schwartz의 가치 질문지를 자기 참조형과 사회 참조형(문화 참조형)으로 구성하여 한국 여자대학생들에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가치 유형에 대한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와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의 상관이 .64로 나타나, 두 유형의 가치 중요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어느 정도 변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 안전과 같이 집단을 이롭게 하는 집단주의적인 가치 영역에서는 문화 참조 중요도가 자기 참조 중요도보다 높

았으며, 자기주도성, 자극, 쾌락주의와 같이 집단보다는 개인을 이롭게 하는 개인주의적인 가치 영역에서는 자기 참조 중요도가 더 높았다. 즉, 한국 문화 맥락에서도 선행 연구들(Fischer, 2006;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과 일관되게, 자기 참조 가치와 문화 참조 가치가 구별 가능했으며, 집단주의적인 문화로 간주되는 한국에서 개인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보다 문화 참조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특성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중요시할 것이라 지각하는 가치 중요도가 서로 다른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사회 계층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 계층과 자기 참조 가치 대 문화 참조 가치

Schwartz(1992)는 같은 문화 내에서 연구참가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및 직업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집단에서 연구참가자를 모집하였다. 그 결과, 연구참가자의 연령은 안전과 정적으로, 쾌락주의와 부적으로 연관되며, 교육 수준은 자기주도성과 정적으로, 전통과 부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사회 계층의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위의 결과는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 가치인 자기주도성을 더 중요하게, 집단주의적 가치인 전통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경제적

안전망을 덜 가지고 있다(Stephens, Fryberg, Markus, Johnson, & Covarrubias, 2012). 이에 따라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삶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과 상황에 더 민감하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스스로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Kraus et al., 2009, 2010; Snibbe & Markus, 2005). 또한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타인과 더 상호작용하며 타인에게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Kraus & Keltner, 2009). 요컨대, 상황에 민감하고 타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한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집단의 조화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독립성을 추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은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더 중요시하며,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덜 중요시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사회 계층에 따라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음을 직접 보여주는 연구는 없으나, 정치 이념에 관련된 연구들은 추론의 발판을 제공한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에 정치 이념 성향이 다르다(강원택, 2005; 강원택 외, 2014). 구체적으로, 하위 계층이 법과 질서, 권위와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정치 이념 성향을 가졌으며(강원택, 2005), 이러한 보수 성향은 개인의 선택, 자율 및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적 가치보다 전통, 권위, 질서 등을 강조하는 권위주의적 가치를 더 강조한다(강원택 외, 2014). 이와 같이 보수적인 정치 이념 성향을 띄는 한국의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보다 전통, 권력 등의 가치를 더 중요시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사회 계층 간의 서로 다른 정치 이념에서 더 나아가, 가치와 정치적 선택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Caprara, Schwartz, Capanna,

Vecchione, & Barbaranelli, 2006). Caprara와 동료들은 이탈리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정치적 선택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좌파 성향(진보 성향)의 정치적 선택을 한 유권자들은 우파 성향(보수 성향)의 정치적 선택을 한 유권자들에 비하여 보편주의, 박애 및 자기주도성을 더 중요시하였으며, 안전, 권력, 성취, 동조 및 전통을 덜 중요시하였다. 비록 Caprara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사회 계층을 살펴보지 않았으나, 이들의 연구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 정치적 선택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정치하자면, 사회 계층에 따라 정치 이념 성향이 달랐던 연구 결과(강원택, 2005; 강원택 외, 2014)와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정치적 선택에서 차이를 보였던 연구 결과(Caprara et al., 2006)는 사회 계층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 계층에 따른 태도와 행동 양식의 차이를 보여준 수많은 선행 연구의 결과들(e.g., 김범준, 2016; Grossmann & Varnum, 2011; Kraus & Keltner, 2009; Kraus et al., 2009; Kraus et al., 2010; Kraus et al., 2012; Piff et al., 2010; Snibbe & Markus, 2005; Stephens et al., 2007)과, 태도와 행동은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결정되고 설명될 수 있다는 Schwartz(1992, 2003)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회 계층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문화 참조 측정과 자기 참조 측정이 구분될 수 있으며(박혜경, 2012; Fischer, 2006; Schwartz, 1992;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 문화 참조 측정 방법이 문화 내에서 공유되는 가치와 규범을 더 잘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Fischer, 2006), 자기 참조 측정에서 보이는 사회 계층

간 차이가 문화 참조 측정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사회적 맥락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타인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려 하기 때문에(Kraus et al., 2009, 2010, 2012),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자신과 유사하게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을 개인주의적인 가치들보다 더 중요시한다고 지각할 것이다. 반면,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통제감을 지니는 동시에 사회적 맥락에 덜 민감하며(Kraus et al., 2009, 2010, 2012), 자신의 독특성을 강조하면서(Snibbe & Markus, 2005; Stephens et al., 2007) 다수에 덜 동조하려 하기 때문에(Snibbe & Markus, 2005; Stephens et al., 2007), 자신과 달리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을 더 중요시하며,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은 덜 중요시한다고 지각할 것이다. 즉,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집단주의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며, 개인주의적 가치를 덜 중요시한다고 지각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 개관

본 연구는 사회 계층에 따라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자기 참조 가치)와 한국인들이 중요시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가치(문화 참조 가치)가 다른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6차 한국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회 계층에 따라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 2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와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연구 1, 연구 2): 사회 계층에 따라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자기 참조 가치)가

다를 것인가?

가설 1: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집단주의 영역의 가치(박애, 전통 및 동조)를 덜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주의 영역의 가치(권력, 성취, 쾌락주의, 자극 및 자기주도성)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연구문제 2(연구 2): 사회 계층에 따라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문화 참조 가치)가 다를 것인가?

가설 2: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개인주의 영역의 가치를 덜 중요하게 여기고, 집단주의 영역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할 것이다.

연구 1: 세계가치관조사 6차 한국

자료(www.worldvaluessurvey.org)

연구 1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집된 세계가치관조사 6차 한국 자료를 통해 사회 계층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치를 집단주의적인 가치와 개인주의적인 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에 기초하여(박혜경, 2012; Oishi, Schimmack, Diener, & Suh, 1998; Schwartz, 1992, 2003; Triandis, 1996),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인 가치들을 더 중요시하고, 집단주의적인 가치들을 덜 중요시하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참가자

세계가치관조사 6차 한국 자료 수집은 섬

지역을 제외한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가자는 지역, 성, 연령 별로 할당 표본 추출되었으며(purposive quota sampling), 자료 수집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대인면접조사(face to face)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는 총 1,200명이었으며(남 592명, 여 608명; 평균 연령=43.17세, 표준편차=14.94), 응답률은 55.4%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한 문항이라도 무응답했을 경우 탈락시켜, 총 1,140명(남 566명, 여 574명; 평균 연령=42.89세, 표준편차=14.89)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측정 도구

세계가치관조사 질문지에는 Schwartz(2003)의 가치 묘사 질문지의 문항 중 일부로 구성된 총 10개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질문지는 10개의 기본 가치 당 한 문항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평정은 6점 척도로 이루어졌다(1: *나와 대단히 비슷하다*, 6: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다음으로, 사회 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상류, 중상위, 중하류, 근로계층, 하류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고, 소득 수준의 경우 저소득부터 고소득 사이 10점 척도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라고 질문한 후 무학(1)부터 대학교(9)까지의 선택지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

먼저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가치 문

항들에 대한 응답과 주관적 사회 계층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하였다.¹⁾ 다음으로, 개인 별 반응 편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개인 내 가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치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평균중심화(centering)를 하였다(Fischer, 2004). 구체적으로, 각 연구참가자의 10개 가치 문항에 대한 반응 평균을 구하였다. 그 후, 각 가치 문항에 대한 반응에서 개인의 반응 평균을 뺀 차이점수를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 계층 분석에는 주관적 사회 계층, 주관적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과 같이 총 세 개의 지표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과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 간의 상관

본 분석에 앞서 사회 계층의 지표인 주관적 사회 계층, 주관적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 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 사회 계층과 주관적 소득 수준($r=.705, p<.001$), 주관적 사회 계층과 교육 수준($r=.232, p<.001$) 및 주관적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r=.316, p<.001$)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각각을 표준화한 후, 평균 낸 값을 사회 계층 지표로 분석에 포함시켰다(e.g., Kraus

et al., 2009; Piff et al., 2010, 연구 3).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수인 성별, 연령, 사회 계층 및 10개의 가치들 간의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연구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1=남, 2=여; $r=-.109, p<.001$)과 연령($r=-.339, p<.001$)이 사회 계층 지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남성의 사회 계층이 여성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계층이 낮았다. 그리고 사회 계층은 10개 가치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 계층은 자기주도성($r=.088, p<.01$), 권력($r=.077, p<.01$), 쾌락주의($r=.147, p<.001$), 박애($r=.089, p<.01$), 성취($r=.076, p<.01$) 및 자극($r=.124,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안전($r=-.081, p<.01$), 동조($r=-.098, p<.001$), 보편주의($r=-.167, p<.001$) 및 전통($r=-.233, p<.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별과 연령은 대부분의 가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므로, 이후의 회귀 분석에서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 계층이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평균 중심화된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 점수에 따라 가치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연구참가자들은 동조($M=.65, SD=1.01$), 안전($M=.47, SD=1.06$), 보편주의($M=.27, SD=1.01$), 쾌락주의($M=.25, SD=1.06$), 성취($M=.22, SD=1.00$), 자기주도성($M=-.10, SD=1.07$), 박애($M=-.12, SD=.97$), 자극($M=-.13, SD=1.09$), 전통($M=-.34, SD=1.24$) 및 권력($M=-1.17, SD=1.21$)의 순서대로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1) 가치 문항들에 대하여 역채점된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에 제시된 내용이 연구참가자 자신을 잘 묘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묘사된 가치를 개인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주관적 사회 계층(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하였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 계층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N=1,14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성별	1*												
2 연령	.037**	1											
3 사회 계층	-.109***	-.339***	1										
4 자기주도성	-.122***	-.195***	.088**	1									
5 권력	.004**	-.126***	.077**	.028	1								
6 안전	.154***	.134***	-.081**	-.273***	-.001*	1							
7 쾌락주의	.051**	-.238***	.147***	.021	.015	.032*	1						
8 박애	-.090**	.047	.089**	-.136***	-.259***	-.189***	-.078**	1					
9 성취	-.043***	-.144***	.076**	-.176***	.011*	-.122***	-.073*	.033*	1				
10 자극	-.074**	-.271***	.124***	.207***	-.200***	-.375***	-.008**	.028*	.036*	1			
11 동조	.017**	.152***	-.098**	-.253***	-.226***	-.002**	-.234***	-.125***	-.122***	-.227***	1		
12 보편주의	.083***	.204***	-.167***	-.156***	-.362***	-.035**	-.278***	-.081**	-.323***	-.112***	.187***	1	
13 전통	.015**	.410***	-.235***	-.278***	-.163***	-.035**	-.372***	-.064*	-.191***	-.315***	.073**	.209***	1
M	1.50**	42.89*	.00	-.10*	-.117*	.47	.25	-.12*	.22	-.13*	.65	.27	-.34
SD	.50	14.89*	.78	1.07*	1.21	1.06*	1.06*	.97	1.00*	1.09*	1.01*	1.01*	1.24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더미 코딩한 후 분석함

* $p < .05$, ** $p < .01$, *** $p < .001$.

사회 계층에 따른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

사회 계층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얼마나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을 통제된 상태에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²⁾ 구체적으로, 모형 1에는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는 사회 계층 지표를 투입하였다.³⁾ 결과표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들 중 유의미한 결과들 중심으로 보고하였다.⁴⁾

먼저, 표 3과 같이 사회 계층은 성별과 연령이 통제된 후에도 쾌락주의($\beta=.08, p<.01$)와 박애($\beta=.11, p<.001$)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쾌락주의와 박애를 더 중요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 계층은 성별과 연령이 통제된 후에도 보편주의($\beta=-.10, p<.001$)와 전통($\beta=-.11, p<.001$)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보편주의와 전통을 덜 중요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통하여 주관적 사회 계층, 주관적 소득 수준 및 교육 수준으로 측정된 사회 계층이 성별과 연령이 통제된

후에도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 즉 자기 참조 가치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쾌락주의와 박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보편주의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가 감소하였다. 쾌락주의는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포함된다. 반면, 전통은 문화, 가족 및 종교적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집단주의적인 가치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덜 중요시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은 일부 지지되었다. 특히, 성별과 연령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사회 계층은 10가지 가치 유형의 중요도를 모두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주도성, 권력, 쾌락주의, 성취, 자극 및 박애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중요시하였으며, 안전, 동조, 전통 및 보편주의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덜 중요시하였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개인주의 가치 영역을 더 중요시하고 집단주의 가치 영역을 덜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내집단 구성원들의 신뢰와 그들을 위한 복지 및 헌신 추구로 정의되는 박애는 집단주의적인 가치에 포함된다는 선행 연구(Schwartz, 1992)와는 달리, 본 연구 1에서는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박애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평등, 정의 및 보호를 추구하고 자연 환경의 보존을 추구하는 보편주의를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더 중요시하였다. 먼저 집단주의 가치 영역에 속하는 박애의 경우,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러한 결과는 높은 사회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모든 사람의 평등과

- 2)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사회 계층은 10개의 가치 중요도를 모두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자기주도성($\beta=.09, p<.01$); 권력($\beta=.08, p<.01$); 안전($\beta=-.08, p<.01$); 쾌락주의($\beta=.15, p<.001$); 박애($\beta=.09, p<.01$); 성취($\beta=.08, p=.01$); 자극($\beta=.12, p<.001$); 동조($\beta=-.10, p=.001$); 보편주의($\beta=-.17, p<.001$); 전통($\beta=-.23, p<.001$).
- 3) 본 논문에 기술된 모든 회귀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 4) 결과표에 보고되지 않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주도성($\beta=.012, p=.693$); 권력($\beta=.040, p=.201$); 안전($\beta=-.024, p=.431$); 성취($\beta=.027, p=.382$); 자극($\beta=.030, p=.332$); 동조($\beta=-.052, p=.097$).

표 3. 사회 계층이 자기 참조 가치를 설명하는 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 1)

변수	쾌락주의				박애				보편주의				전통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모형 1															
성별	.127	.061	.060*		-.178	.057	-.092**		.153	.059	.075**		.000	.067	.000
연령	-.017	.002	-.240***		.003	.002	.051		.014	.002	.202***		.034	.002	.410***
모형 2															
성별	.144	.061	.068*		-.157	.057	-.081**		.133	.059	.065*		-.025	.067	-.010
연령	-.015	.002	-.212***		.006	.002	.087**		.011	.002	.167***		.031	.002	.374***
사회 계층	.112	.042	.083**		.136	.039	.110***		-.134	.040	-.103***		-.169	.045	-.107***
R^2		.066				.021				.057				.178	
Adj. R^2		.064				.019				.054				.176	
ΔR^2		.006**				.011***				.009***				.010***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더미 코딩한 후 분석함

* $p < .05$, ** $p < .01$, *** $p < .001$.

보호보다는 자신들이 접한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내집단(즉, 높은 사회 계층)의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보편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지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평등, 정의 및 보호를 추구하는 보편주의가 구현되기를 바라고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동일한 결과가 연구 2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예측과 일치하였으나, 10개의 기본 가치 각각을 한 문항만으로 측정한 점과 객관적 사회 계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등 2차 자료가 가지는 한계들도 있었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회 계층의 지표들을 추가하고 개정된 가치 묘사 질문지(Schwartz et al., 2012)를 사용하여 연구 1의 결과가 반복 검증되는지 살펴보았다. 보다 중요하게, 연구 2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와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가 가치의 영역(집단주의적-개인주의적)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신과 달리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개인주의 가치들을 덜 중요시하고, 집단주의 가치들을 더 중요시한다고 여기리라 예상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집단주의 가치 영역과 개인주의 가치 영역의 자기 참조 중요도와 문화 참조 중요도가 다른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연구참가자 자신은 집단주의 가치 영역은 덜 중요시하고, 개인주의 가치 영역은 더 중요시하는 반면, 문화 참조 가치에 있어서는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가치 영역은 덜 중요시하고, 집단주의 가치 영역은 더 중요시한다고 지각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전국 거주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성인 300명이 온라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현재 대학생인 14명(남 9명, 여 5명)은 그 수가 적고 소득과 직업이 불분명해 사회 계층 지표를 산출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286명(남 144명, 여 142명; 평균 연령 = 46.13세, 표준편차 = 13.00)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가치 묘사 질문지: 자기 참조형

Schwartz의 가치질문지(Schwartz Value Survey; Schwartz, 1992)를 사용한 기존 선행연구들(e.g., 박혜경, 2012; Fischer, 2006;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타당화된(최정원, 이영호, 2014) 가치 묘사 질문지(Portrait Values Questionnaire: PVQ; Schwartz, 2003; Schwartz et al., 2012)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가치 묘사 질문지가 Schwartz의 가치질문지에 비해

여 연령이나 교육 수준이 더 낮은 사람들도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 계층의 지표 중 하나인 교육 수준에 있어 다양한 연구참가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는 가치 묘사 질문지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이미 단축형 가치 묘사 질문지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와 같은 대규모 조사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대규모 조사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 측정될 한국 사회의 여러 계층의 가치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치 묘사 질문지는 문항의 길이가 Schwartz의 가치질문지에 비해 짧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chwartz, 2003).

기존의 단축형 가치 묘사 질문지에는 10개의 가치를 알아보는 질문들이 각각 2개씩 포함되어(보편주의만 3개)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Schwartz, 2003). 그러나 최근 Schwartz와 동료들(2012)이 개정된 가치 묘사 질문지(PVQ-R)에서는 기존 가치 묘사 질문지 중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통 가치 문항들이 대거 수정되었으며, 체면과 겸손 가치 측정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서지영과 정영숙(2012)이 번안한 기존의 가치 묘사 질문지(Schwartz, 2003)와 세계가치관조사의 문항들을 참고하고, 추가된 가치 문항들에 대하여 개정된 가치 묘사 질문지(Schwartz et al, 2012)의 원문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12개의 가치(박애, 보편주의, 자기주도성, 자극, 쾌락주의, 성취, 권력, 안전, 동조, 전통, 겸손, 체면)를 측정하는 총 25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간략하게 묘사된 항목들을 읽고, 이

사람이 자신과 비슷한 정도를 6점 척도 상에 평정하였다(1: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6: *나와 매우 비슷하다*). 자기 참조 가치 묘사 문항들에는 '이 사람'이라는 단수형 대명사를 사용하였다(예: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 묘사 질문지: 문화 참조형

문화 참조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 참조 가치 묘사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참가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간략하게 묘사한 것이라 설명한 후, 이들이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정도를 6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였다(1: *전혀 비슷하지 않다*, 6: *매우 비슷하다*). 자기 참조 가치 묘사 질문과 구별하고, 일반적인 한국인들과의 비슷한 정도에 대하여 비교가 용이하게끔 문화 참조 가치 묘사 문항들에는 '이들'이라는 복수형 대명사를 사용하였다(예: '이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계층

연구참가자들의 사회 계층을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월 평균 소득, 월 평균 가계 총 소득, 교육 수준 및 부모의 교육 수준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직업 또한 객관적 사회 계층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기는 하나, 직업이 학력 및 소득과 관련성이 높고 소득이 직업 위세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선행 연구들에 따라(유홍준, 김월화, 2002, 2013), 본 연구에는 직업 문항을 추가하지 않고 소득과 교육 수준 문항만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주관적인 사회 계층을 측정하기 위해 MacArthur의

10단계 사다리 그림을 제시하였다(Adler et al., 2000). 연구참가자들은 자신의 교육 수준, 수입, 직업의 지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10단계 사다리 중 해당하는 곳의 번호를 선택하였다. 추가적으로,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직업의 위신을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소득과 최종 학력을 떠나, 귀하의 현재 직업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명예롭게 여겨지는 직업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0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저, 10: 고).

절차

연구 2에서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컨슈머인바이트&인바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참가자들에게 자기 참조 가치 질문지, 연구의 목적을 가리고 연구 참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포함된 무관 과제(filler task) 및 문화 참조 가치 질문지를 제시하였다. 질문의 순서에 응답이 달라지는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라틴-스퀘어 설계(Latin-square design)로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질문지들을 제시하였다.⁵⁾ 그 후, 연구참가자들은 사회 계층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과 성별, 연령, 거주지 및 대학생 여부를 물어보는 문항들이 포함된 인구통계학적 질문지에 답하였다.

분석 방법

연구 1과 마찬가지로 가치 문항 응답에 개

5) 컨슈머인바이트&인바이트 프로그램 특성 상 척도 제시 순서를 알 수 없기에, 순서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인 별 반응 편향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개인 내 가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하였다(Fischer, 2004). 먼저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기 참조형 질문지에 포함된 25개의 문항들 중 각각 2문항씩으로 이루어진 12개의 가치 유형(보편주의에서는 3개)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 후, 25개 문항 전체에 대한 반응 평균을 구한 후, 앞서 산출된 12개의 가치 유형 각각의 평균 점수에서 25개 문항 전체에 대한 반응 평균을 뺀 차이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예: 참가자 A의 평균중심화된 자기 참조 성취 중요도 = 참가자 A의 자기 참조 성취 관련 문항 2개의 평균 점수 - 참가자 A의 자기 참조형 질문지 25개 문항 전체에 대한 반응 평균). 마찬가지로,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 참조형 질문지에 대한 12개의 가치 유형 각각의 평균 점수에서 25개 문항 전체에 대한 반응 평균을 뺀 차이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예: 참가자 A의 평균중심화된 문화 참조 성취 중요도 = 참가자 A의 문화 참조 성취 관련 문항 2개의 평균 점수 - 참가자 A의 문화 참조형 질문지 25개 문항 전체에 대한 반응 평균). 그리고 연구참가자의 사회 계층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참가자의 교육 수준, 월 소득, 가계 총 소득 및 주관적 사회 계층 지표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참가자 중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전체 286명 중 239명(83.57%)이었기에 부모의 교육 수준 지표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직업적 위신에 대하여 47명이 응답하지 않았으므로 직업적 위신 문항을 사회 계층 지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결과 및 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 계층 지표들 간의 상관

본 분석에 앞서, 사회 계층의 지표인 교육 수준, 월 소득, 가계 총 소득 및 주관적 사회 계층과 성별 및 연령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별과 월 소득 간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30, p < .001$)이 나타나 성별을 집단으로 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성($M = 6.59, SD = 2.25$)이 여성($M = 5.09, SD = 2.48$)보다 더 높은 월 소득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t(284) = 5.379, p < .001$. 연령은 주관적 사회 계층($r = .26, p < .001$) 및 월 소득($r = .25,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교육 수준($r = -.14, p < .05$)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 계층을 높게 보고하였으며, 월 소득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은 낮았다.

사회 계층 지표들과 관련하여, 주관적 사회 계층에 대해서는 6이라고 응답한 연구참가자가 가장 많았고(64명, 22.4%), 5와 7이라고 응답한 연구참가자가 그 뒤를 이었다(각각 56명, 19.6%). 교육 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175명, 61.2%), 고등학교 졸업(52명, 19.6%)과 대학원 이상(42명, 14.7%)이 그 뒤를 이었다. 월 소득에서는 401만 원 이상(62명, 21.7%)이 가장 많았고, 연구참가자들의 절반 이상이 월 소득이 251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가계 총 소득은 '모른다'고 응답한 8명을 제외한 278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평균 가계 총 소득은 401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였다. 가계 총 소득이 701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연구참가자가 가장 많았고(53명, 18.5%), 연구참가자들의 60% 이상이 가계 총 소득이 401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 계층 지표인 주관적 사회 계층, 교육 수준, 월 소득 및 가계 총 소득이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21 < r < .55, p < .001$), 연

표 4.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N=286)

	1	2	3	4	5	6
1 성별	1					
2 연령	-.02	1				
3 주관적 사회 계층	-.09	.26***	1			
4 교육 수준	-.08	-.14*	.21***	1		
5 월 소득	-.30***	.25***	.44***	.26***	1	
6 가계 총 소득 (N=278)	-.11	.05	.42***	.28***	.55***	1
M	1.50	46.13	5.23	8.70	5.85	6.27
SD	.50	13.00	1.77	.99	2.48	2.02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더미 코딩한 후 분석함

* $p < .05$, ** $p < .01$, *** $p < .001$.

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을 z-표준화한 후, 평균 낸 값을 사회 계층 지표로 추후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준화한 사회 계층 지표는 각각 성별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198, p = .001$), 연령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49, p < .05$)을 보였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 계층이 높았으며, 연구참가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계층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 2의 결과는 연구 1에서 남성의 사회 계층이 여성보다 높았던 결과와 일관되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 계층이 낮았던 연구 1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 대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

먼저, 가치들의 자기 참조 중요도와 문화 참조 중요도가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서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와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r(10) = .04, p > .10$. 이 결과는 개인의 가치 우선순위와 연구참가자들이 지각하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가치 우선순위가 서로 다름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연구참가자들은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보편주의, 쾌락주의, 동조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긴 가치는 권력이었다. 반면,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의 순위를 살펴보면, 연구참가자들은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체면, 안전, 권력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평정한 가치는 겸손이었다.

사회 계층을 고려하기에 앞서,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와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 간에

표 5. 가치의 자기 참조 중요도 대 문화 참조 중요도

가치 유형	자기 참조 유형 M (SD)	문화 참조 유형 M (SD)	t(285)
자기주도성	.09 (.69)	-.33 (.73)	7.635***
권력	-.68 (.90)	.47 (1.00)	-16.021***
전통	-.44 (.95)	.07 (.79)	-7.755***
보편주의	.25 (.54)	-.38 (.65)	13.461***
성취	.02 (.76)	.71 (.88)	-11.869***
안전	.60 (.69)	.60 (.71)	-.011
자극	-.46 (.88)	-.46 (.83)	.105
동조	.22 (.65)	-.07 (.68)	5.320***
체면	.07 (.73)	.66 (.84)	-9.761***
겸손	.02 (.73)	-.62 (.85)	10.504***
쾌락주의	.25 (.65)	-.12 (.75)	6.756***
박애	-.06 (.72)	-.35 (.71)	6.008***

*** $p < .001$.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안전과 자극을 제외한 10개의 가치 유형에서 모두 참조 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주도성, 보편주의, 동조, 겸손, 쾌락주의 및 박애에서는 자기 참조 중요도가 문화 참조 중요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p < .001$). 이는 해당 가치들이 일반적인 한국인들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반면, 권력, 전통, 성취 및 체면에서는 문화 참조 중요도가 자기 참조 중요도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p < .001$). 이는 해당 가치들이 자신보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주의 가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자기주도성과 쾌락주의의 경우 자기 참조 중요도가 문화 참조 중요도보다 더 높았으며, 집단주의 가치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지는 전통의 경우 문화 참조 중요도가 자기 참조 중요도보다 더 높았다. 즉, 독립적인 자신의 생각과 능력 배양의 자유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를 중시하는 자기주도성과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 및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가 일반적인 한국인들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반면, 문화와 가족 및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함을 추구하는 전통 가치는 자신보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더 중요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사회 계층, 참조 유형 및 가치 간의 상관

먼저,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 계층과 자기 참조 가치 및 문화 참조 가치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자기 참조 유형

에서 12개의 가치 중 권력, 성취, 보편주의와 사회 계층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r_{\text{권력}} = .21, p < .001$; $r_{\text{성취}} = .13, p < .05$; $r_{\text{보편주의}} = -.16, p < .01$. 즉,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권력과 성취가 중요하며, 보편주의가 덜 중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문화 참조 유형에서 12개의 가치 중 자기주도성, 쾌락주의, 전통과 사회 계층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r_{\text{자기주도성}} = -.17, p < .01$; $r_{\text{쾌락주의}} = -.13, p < .05$; $r_{\text{전통}} = .13, p < .05$. 즉,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자기주도성과 쾌락주의를 덜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지각하였다.

사회 계층에 따른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 및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상관분석을 통하여 사회 계층과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 및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 간 유의미한 관련성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사회 계층이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 및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 지각하는 가치들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 1에는 연구참가자들의 성별과 연령을 투입하였고, 모형 2에는 사회

6)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사회 계층은 권력 및 보편주의의 자기 참조 중요도와 자기주도성 및 전통의 문화 참조 중요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자기 참조 권력($\beta = .20, p = .001$); 자기 참조 보편주의($\beta = -.16, p < .01$); 문화 참조 자기주도성($\beta = -.12, p < .05$); 문화 참조 전통($\beta = .13, p < .05$).

표 6. 사회 계층이 자기 참조 가치를 설명하는 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 2)

변수	자기 참조 가치								
	권력			성취			보편주의		
	B	SE	β	B	SE	β	B	SE	β
모형 1 성별	-.345	.102	-.192***	-.094	.088	.062	.110	.064	.102
연령	-.016	.004	-.228***	-.010	.003	-.166**	.002	.002	.057
모형 2 성별	-.271	.102	-.151**	-.057	.089	-.038	.076	.064	.071
연령	-.018	.004	-.258***	-.011	.003	-.184**	.003	.002	.081
사회 계층	.263	.072	.210***	.133	.063	.127*	-.121	.045	-.161**
R ²	.128			.046			.038		
Adj. R ²	.119			.036			.028		
ΔR^2	.042***			.015*			.024**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더미 코딩한 후 분석함

*p < .05, **p < .01, ***p < .001.

계층 지표를 투입하였다. 결과표들은 준거변수인 자기 참조 가치들과 문화 참조 가치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들 중 유의한 결과들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먼저,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과 연령이 통제된 후 사회 계층은 자기 참조 유형에서 권력($\beta=.21, p<.001$)과 성취($\beta=.13, p<.05$)를 정적으로, 보편주의($\beta=-.16, p<.01$)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권력과 성취를 더 중요시하고 보편주의를 덜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과 연령이 통제된 후 사회 계층은 문화 참조 유형에서 자기주도성($\beta=-.17, p<.01$)과 쾌락주의($\beta=-.14, p<.05$)를 부적으로, 전통($\beta=.14, p<.05$)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자기주도성과 쾌락주의를 덜 중요시하고,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고 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위와 위신 및 다른 사람들과 자원에 대한 지배와 통제력을 추구하는 권력과 사회적 기준에 따른 성공을 추구하는 성취를 더 중요시하는 반면, 자신의 독립적인 생각과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자유로 정의되는 자기주도성 및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과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쾌락주의를 일반적인

7) 결과표에 보고되지 않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자기 참조 자기주도성($\beta=-.045, p=.466$); 안전($\beta=-.052, p=.394$); 쾌락주의($\beta=.018, p=.762$); 박애($\beta=-.115, p=.054$); 자극($\beta=-.045, p=.446$); 동조($\beta=-.033, p=.589$); 전통($\beta=.056, p=.337$); 겸손($\beta=-.035, p=.562$); 체면($\beta=.021, p=.717$); 문화 참조 권력($\beta=.080, p=.173$); 안전($\beta=.007, p=.911$); 박애($\beta=-.036, p=.545$); 성취($\beta=.104, p=.079$); 자극($\beta=-.059, p=.333$); 동조($\beta=.095, p=.120$); 보편주의($\beta=-.035, p=.561$); 겸손($\beta=.028, p=.639$); 체면($\beta=-.044, p=.465$).

표 7. 사회 계층이 문화 참조 가치를 설명하는 정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 2)

변수	문화 참조 가치								
	자기주도성			쾌락주의			전통		
	B	SE	β	B	SE	β	B	SE	β
모형 1 성별	.004	.084	.003	-.128	.088	-.086	.062	.093	.039
연령	.014	.003	.256***	-.001	.003	-.014	.003	.004	.042
모형 2 성별	-.043	.085	-.030	-.168	.090	-.113	.103	.094	.066
연령	.016	.003	.279***	.000	.003	.006	.001	.004	.023
사회 계층	-.168	.060	-.165**	-.143	.063	-.138*	.147	.066	.135*
R ²	.091			.025			.020		
Adj. R ²	.081			.015			.010		
ΔR^2	.026**			.018*			.017*		

성별은 1=남자, 2=여자로 더미 코딩한 후 분석함

*p < .05, **p < .01, ***p < .001.

한국인들이 덜 중요시한다고 지각하였다. 이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의 평등, 정의 및 보호를 추구하며 자연 환경의 보존을 추구하는 보편주의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덜 중요한 가치라 여겼으며, 문화, 가족 및 종교적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함을 추구하는 전통을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중요시할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은 개인주의 영역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이를 덜 중요시할 것이며, 반대로 자신은 집단주의 영역의 가치를 덜 중요시하지만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더 중요시할 것이라고 지각하리라는 가설을 일부 지지하였다. 특히,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보편주의를 덜 중요시하는 결과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종합 논의에 제시하였다.

종합논의

연구 1에서는 세계가치관조사 6차 한국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 계층에 따라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른지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 지각하는 가치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2를 통해 개인에게 중요한 가치와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고 지각하는 가치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개인주의 가치 영역에 해당하는 자기주도성과 쾌락주의를 자신이 일반적인 한국인들보다 더 중요시하고, 집단주의 가치 영역에 해당하는 전통을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자신보다 더 중

요시할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둘째, 연구 1과 연구 2에서 연구참가자들의 연령과 성별을 통제하고 사회 계층에 따라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달라지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개인주의 가치 영역에 해당하는 권력, 성취 및 쾌락주의를 더 중요시하는 반면, 집단주의 가치 영역에 해당하는 전통을 덜 중요시하였다. 셋째, 사회 계층에 따라 가치의 자기 참조 중요도에서뿐만 아니라 문화 참조 중요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집단주의 가치 영역에 해당하는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반면, 개인주의 가치 영역에 해당하는 쾌락주의와 자기주도성을 덜 중요시할 것이라는 지각이 강해졌다. 종합하면,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쾌락주의, 권력 및 성취와 같은 개인주의 가치 영역을 더 중요시하고 전통과 같은 집단주의 가치 영역을 덜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자신과 달리 집단주의 가치 영역에 속하는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개인주의 가치 영역에 속하는 자기주도성을 덜 중요시할 것이라고 지각하였다.

위의 결과는 높은 사회 계층이 자신의 독특성을 더 추구하는 반면, 낮은 사회 계층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보다 민감하고 (Kraus et al., 2009; Snibbe & Markus, 2005; Kraus et al., 2010), 다수에 동조하기 때문에 (Snibbe & Markus, 2005; Stephens et al., 2007)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주변 맥락에 덜 민감하며 개인의 통제감이 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인들과는 다른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덜 가질 것이며, 다수가 향유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가치를 더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자신은 개인주의 영역의 가치를 추구하되,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영역의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여기는 등 참조 유형에 따라 다른 가치 중요도를 보였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결과 중 일부는 본 연구의 가설 및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연구 1과 2에서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연구참가자들은 보편주의를 덜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보편주의가 반드시 집단주의적인 가치에 속하지는 않으며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영역의 경계(boundary)에 속한다는 Schwartz(1992)의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입지가 취약한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 정의 및 보호를 강조하는 보편주의를 더 회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김연신과 최한나(2009)는 이론과 달리, 집단이나 사회의 질서, 안전과 같은 가치 세부항목들이 한국에서는 안전 보다는 보편주의 가치 영역에 포함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보편주의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가치 영역의 경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Schwartz(1992)의 이론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보편주의가 사회적 질서 및 안전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며 보다 집단주의적 가치 영역에 가까울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1에서 박애의 경우에도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다른 방향의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고 그들의 복지에 헌신함을 추구하는 박애를 사회 계층이 높을수록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애를 집단주의적인 가치 영역에 포함시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박애를 더 중요시할 것이라 예상한 바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연구 1의 참가자들이 제주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 단위 면대면 면접 조사를 통해 표집이 되어 높은 대표성을 가지고 1,14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였음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표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한국 문화에서 박애가 지니는 고유한 의미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사회 계층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내집단(즉, 높은 사회 계층)을 위한 결속, 신뢰 및 이익을 상대적으로 사회 계층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 계층에 따른 박애와 보편주의에서의 결과가 국외 선행연구의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후속 연구에서 보다 면밀히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문화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가 크다. 문화란 공유된 맥락 내에 존재하는 개인들이 모인 역동적인 집단인 동시에 사회적 학습을 통해 얻어진 생각, 믿음, 기술 및 행동 양식으로 정의된다(Heine, 2016). 이러한 문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화 심리학자들은 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응답을 수집하여 왔다(Fischer,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개개인들의 응답의 총합(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의 총합)보다는 개인들이 지각하는 문화 구성원들 일반에 대한 응답(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이 한국 문화를 보다 잘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자기 참조 가치보다는 문화 참조 가치가 더 잘 포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권력의 경우 자기 참조 중요도가 가장 낮은 가치였으나,

문화 참조 중요도는 네 번째로 높았다. 또한, 성취의 경우 자기 참조 중요도는 중위권이었으나, 문화 참조 중요도는 가장 높았다. 이는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는 권력 가치와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두는 성취 가치가 공통적으로 사회적 존경(social esteem)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see Schwartz, 1992, p. 40)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적인 국가에서 권력과 성취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해석 가능하다. 또한, 개인 수준(individual-level)에서 권력과 성취가 개인주의적인 가치 영역에 속하지만 국가 수준(cultural-level)에서는 개인주의적인 국가에서보다 집단주의적인 국가에서 더 우선시 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Schwartz, 1992; see also, Oishi et al., 1998). 다시 말하자면, 본 연구 결과 권력과 성취는 개인 수준(individual-level)의 가치를 반영하는 자기 참조 중요도에서보다 국가 수준(cultural-level)의 가치를 반영하는 문화 참조 중요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이는 권력과 성취가 집단주의적인 국가에서 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다. 또한, 한국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취와 권력 가치의 문화 참조(사회 참조) 중요도 점수가 자기 참조 중요도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문화 참조에서 성취 가치가 1위, 권력 가치가 4위로 중요하게 지각된 결과와 일치한다(박혜경, 2012). 뿐만 아니라 연구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참조 측정을 하였을 때, 일반적인 한국인들에게 개인주의 가치 영역(자기주도성, 쾌락주의)은 덜 중요하고 집단주의 가치 영역(전통)은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과 같이 집단주의 문화를 보다 잘

반영함을 보여주었다. 즉, 위의 결과들은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가 자기 참조 가치 중요도보다 해당 국가의 문화(즉,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문화)를 보다 잘 반영함을 지지하며, 문화를 보다 잘 반영하는 쪽은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를 통해 드러나는 지각된 문화적 합의임을 보여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박혜경, 2012; Fischer, 2006;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 see also, Schwartz, 2014).

둘째, 본 연구는 사회 계층에 따른 인지, 태도 및 행동 양식의 차이를 보여준 기존 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인지,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의 가치에서도 사회 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가치가 사회 계층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사회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낮은 사람들이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은(Piff et al., 2010), 낮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보편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높은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접하는 환경은, 이들로 하여금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사회 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보다 스스로렵없이 하는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가 사회 계층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매개할 가능성을 후속 연구에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및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중요시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가치가 다름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 내

에서도 사회 계층이 하위문화로 개념화되고 경험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문화 차이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한 국가나 문화 내에서도 사회 계층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므로, 사회 계층에 대한 문화심리학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른 가치 중요도를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었기에 연구참가자들의 자료 분석 시 성별과 연령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가치 중요도의 차이 또한 대부분의 가치 유형에서 유의미하였으므로, 연령을 통제하는 것이 실세계의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연령과 사회 계층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 연령을 통제하는 것이 가치 중요도에 대한 사회 계층의 효과를 과소 혹은 과대 추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과 사회 계층을 주요 변수로서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문화 참조 측정을 하기 위해 '일반적인 한국인들'을 참조 기준으로 두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회 계층에 따라 '일반적인 한국인들'에 대한 해석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 계층이 높은 개인은 일반적인 한국인을 자신보다 계층이 낮은 사람들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회 계층이 낮은 개인은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이웃들을 일반적인 한국인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본 연구 2의 문화 참조 가치 중요도는 한국인 전체가 아닌 상대적으로 계층이 낮은 한국인들의 특성을 주로 반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문화 참조 가치 측정 시, 내집단

문화와 외집단 문화로 참조 집단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위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를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단주의적 가치로 구분하고, 두 유형의 가치들의 자기 참조 중요도와 문화 참조 중요도가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구분하여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와 가족, 거주 도시 및 출신 국가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가치의 차이를 살펴본 최근의 연구가 있다(Hanel, Wolfradt, Lins de Holanda Coelho, Wolf, Vilar, Monteiro, et al., 2018). 이 연구에 따르면, 자기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가족이 중요시할 것이라 지각하는 가치들은 보편주의, 박애, 자기주도성, 전통, 동조 및 안전과 같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특성을 지니는 가치들인 반면, 거주 도시와 출신 국가의 사람들이 중요시할 것이라 지각하는 가치들은 권력, 성취, 쾌락주의 및 자극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정적 특성을 지니는 가치들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Hanel과 동료들(2018)은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 대체로 정확하지 않고, 자신과 비교했을 때 타인은 상대적으로 긍정적 가치들을 덜 중요시하며, 상대적으로 부정적 가치들은 더 중요시한다고 여기는 등 자기고양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자기 참조로 측정된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문화 참조로 측정된 지각된 합의 수준이 문화 간 차이(예컨대, 응중, 귀인 및 사후 가정적 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했다는 연구 결과(Zou, Tam, Morris, Lee, Lau, & Chiu, 2009) 및 문화 참조 접근이 문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

하는 것임을 주장한 여러 선행 연구들(Fischer, 2006; 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의 관점과는 반대로, Hanel과 동료들(2018)은 타인에 대한 지각을 요하는 문화 참조 측정에 자기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오지각이 반영된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문화 참조 측정이 자기 고양적 오지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연구 2에서 일반적인 한국인들보다 자신은 쾌락주의를 중요시하는 반면 전통은 자신보다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더 중요시한다고 지각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긍정적 특성을 가지는 전통을 자신이 더 중요시하고 부정적 특성을 가지는 쾌락주의를 타인이 더 중요시한다고 여긴 Hanel과 동료들(2018)의 결과와 상충된다. 이들의 연구는 브라질, 독일 및 영국과 같이 서구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수행되었기에, 후속 연구를 통해 비서구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일본 및 중국 등에서도 지각된 가치가 Hanel과 동료들(2018)의 주장과 같이 자기 고양적 오지각을 반영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지, 아니면 Fischer(2006)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Wan, Chiu, Peng, et al., 2007; Wan, Chiu, Tam, et al., 2007; Zou et al., 2009)의 주장과 같이 문화 참조 접근이 해당 문화를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저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은 계층 대물림 현상을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2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연구참가자들을 선별한 후, 부모의 대학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이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부모와

자신이 모두 대학 교육을 경험한 연구참가자들이 양부모 모두 고졸이거나 한 부모만 대학 경험을 가진 연구참가자들보다 겸손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 198)=4.40$, $p<.05$. 추후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 소득이나 주관적 사회 계층이 부모-자녀 세대 간 유지되었거나 상승되었을 때, 가족 내에서 강조하는 가치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수저론, 계층 대물림, 갑질 논란 등의 사회 문제가, 대대로 사회 계층이 높았던 가족과 그렇지 않았던 가족 내에서 강조되고 교육된 가치 차이에서 비롯되는지 가능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 5-28.
- 강원택, 김병연, 안상훈, 이재열, 최인철 (2014).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울대 교수 5인의 계층 갈등 대해부!, 21세기북스.
- 김경미, 류승아, 최인철 (2012). 가족간 식사, 통화 및 여가활동과 중년기의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 279-300.
- 김도영 (2015).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6, 329-369.
- 김범준 (2016). 사회계층의 심리: 문화적 사고성향 (분석적-종합적 사고)과 사회비교성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 19-36.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여름호), 241-268.
- 김연신, 최한나 (2009). Schwartz의 보편적 가치 이론의 적용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16.
- 김위정 (2012). 계층간 학력 격차의 변화: 학교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 49-75.
- 김진영 (2007).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의 관계, 한국사회학, 41, 127-153.
- 박수익 (2011).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1, 55-76.
- 박정은, 박혜경 (2017).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통합 및 분화와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 23-45.
- 박혜경 (2012). 언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가? 가치의 실제 자기 중요도 및 지각된 사회적 중요도와 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 25-43.
- 박혜경 (2015). 도덕판단과 처벌판단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역할에 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6, 53-69.
- 백병부 (2012). 가정배경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와 수행평가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22, 111-131.
- 변상우 (2018). 사회계층에 대한 재조명.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 101-130.
- 서지영, 정영숙 (2012). 연령에 따른 가치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 21-44.
- 오경자, 박규리, 오서진 (2010). 해외거주 후 국내대학에 진학한 귀국 대학생의 문화적응양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 125-146.
- 유홍준, 김월화 (2002). 한국사회의 직업지위에

-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 개발연구, 5, 35-66.
- 유홍준, 김월화 (2013). 직업위세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69-178.
- 이왕원, 김문조, 최 울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 한국사회학, 50, 47-284.
- 조인주 (2010). 재미 한인 남성의 우울증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6, 221-240.
- 최정원, 이영호 (2014). 개정된 가치묘사질문지 (PVQ-R) 한국판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 553-593.
-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12에서 2017,10,10 자료 얻음.
- 황수경 (2017, 5, 22). 지니계수에도 안 잡히는 소득 불평등... '계층 이동 사다리' 사라졌기 때문. 조선일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1/2017052101900.html에서 2017, 10, 17 자료 얻음.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592.
- Caprara, G. V., Schwartz, S., Capanna, C., Vecchione, M., & Barbaranelli, C. (2006).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27*, 1-28.
- Cohen, A. B. (2009). Many forms of culture. *American Psychologist, 64*, 194-204.
- Diemer, M. A., Mistry, R. S., Wadsworth, M. E., Lopez, I., & Reimers, F. (2013). Best practices in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social class in psychological research.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13*, 77-113.
- Fischer, R. (2004). Standardization to account for cross-cultural response bias: A classification of score adjustment procedures and review of research in JCCP.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263-282.
- Fischer, R. (2006). Congruence and functions of personal and cultural values: Do my values reflect my culture's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1419-1431.
- Grossmann, I., & Varnum, M. E. (2011). Social class, culture, and cogni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 81-89.
- Hanel, P. H., Wolfradt, U., Lins de Holanda Coelho, G., Wolf, L. J., Vilar, R., Monteiro, R. P., ... & Maio, G. R. (2018). The Perception of Family, City, and Country Values Is Often Bias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9*, 831-850.
- Heine, S. J. (2016). *Cultural psychology*. (3rd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Kraus, M. W., Cote, S., & Keltner, D. (2010). Social class, contextualism, and empathic accuracy. *Psychological Science, 21*, 1716-1723.
- Kraus, M. W., & Keltner, D. (2009).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20*, 99-106.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09). Social class, sense of control, and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992-1004.
- Kraus, M. W., Piff, P. K., & Keltner, D. (2011).

- Social class as culture: The convergence of resources and rank in the social real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0, 246-250.
- Kraus, M. W., Piff, P. K., Mendoza-Denton, R., Rheinschmidt, M. L., & Keltner, D. (2012). Social class, solipsism, and contextualism: how the rich are different from the poor. *Psychological Review*, 119, 546-572.
- Magee, J. C., & Smith, P. K. (2013). The social distance theory of pow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7, 158-186.
- Markus, H. M., & Conner, A. (2013). *Clash! 8 cultural conflicts that make us who we are*. New York: Hudson Street Press.
- Oishi, S., Schimmack, U., Diener, E., & Suh, E. M. (1998). The measurement of values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1177-1189.
- Piff, P. K., Kraus, M. W., Cote, S., Cheng, B. H., & Keltner, D. (2010). Having less, giving more: the influence of social class on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771-784.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 19-45.
- Schwartz, S. H. (2003). A proposal for measuring value orientations across nations. *Questionnaire Package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259-290.
- Schwartz, S. H. (2014). Rethinking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societal culture in light of empirical finding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5, 5-13.
- Schwartz, S. H., & Bilsky, W. (1987). Toward a universal psychological structure of human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50-562.
- Schwartz, S. H., & Bilsky, W. (1990). Toward a theory of the universal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Extensions and cross-cultural re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78-891.
- Schwartz, S. H., Cieciuch, J., Vecchione, M., Davidov, E., Fischer, R., Beierlein, C., ... & Dirilen-Gumus, O.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 663-688.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703-720.
- Stephens, N. M., Fryberg, S. A., Markus, H. R., Johnson, C. S., & Covarrubias, R. (2012). Unseen disadvantage: how American universities' focus on independence undermines the academic performance of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1178-1197.
- Stephens, N. M., Markus, H. R., & Townsend, S. S. (2007). Choice as an act of meaning: the case of social cla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814-830.
- Triandis, H. C. (1996). The psychological measurement of cultural syndrome. *American Psychologist*, 51, 407-415.
- Wan, C., Chiu, C. Y., Peng, S., & Tam, K. P.

- (2007). Measuring cultures through intersubjective cultural norms: Implications for predicting relative identification with two or more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8, 213-226.
- Wan, C., Chiu, C. Y., Tam, K. P., Lee, S. L., Lau, I. Y. M., & Peng, S. (2007). Perceived cultural importance and actual self-importance of values in cultur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337-354.
- Wike, R., (2013, Nov, 15). The global consensus: Inequality is a major problem. Pew Research Center.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3/11/15/the-global-consensus-inequality-is-a-major-problem/> 에서 2017,10,10 자료 얻음.
- Zou, X., Tam, K. P., Morris, M. W., Lee, S. L., Lau, I. Y. M., & Chiu, C. Y. (2009). Culture as common sense: Perceived consensus versus personal beliefs as mechanisms of cultural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579-597.
- 논문 투고일 : 2018. 07. 19
1 차 심사일 : 2018. 07. 24
게재 확정일 : 2018. 10. 24

Value differences by social class: Self-referenced values versus culture-referenced values

Hyebin Cheon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is research, it was examined whether the importance of value of self(i.e., self-referenced values) and the perceived importance of values of average Koreans(i.e., culture-referenced values) differ according to social class. In Study 1, differences in the importance of self-referenced values according to the social class of 1,140 adults aged over 19 years old were examined using Korean data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Findings showed that higher social class wa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Hedonism (which belongs to the individualistic value domain) and Benevolence, and lower levels of Tradition (which belongs to the collectivistic value domain) and Universalism. In Study 2, culture-referent questionnaires were add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self-referenced values and culture-referenced values according to social class. Findings showed that higher social class was associated with greater importance attached to individualistic value domain (namely, Power and Achievement), and as a result of Study 1, less importance attached to Benevolence towards the self. On the contrary, for culture-referent ratings, higher social class was associated with lower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of individualistic value domain (namely, Self-direction and Hedonism) and greater importance attached to Tradition (which belongs to the collectivistic value domain) for average Korea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ortance of self-referenced values and culture-referenced values differ by social class. The need for social class research taking into account culture and the importance of the culture-referent ratings is highlighte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class, values, self-referent ratings, culture-referent ratings